

# 월간 기업경제

HRI Business Economics  
11 1993 NOVEMBER

월간기업경제 / 등록번호: 라 6125 / 등록일자: 1993년 7월 8일 / 발행일자:  
1993년 11월 2일 / 발행 및 편집인: 배성동 /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주소: 150 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4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462호 / 전화: 784 6545~9, FAX 784 6583 / 인쇄소: 서울컴퓨터인쇄사

94년 경제의 운용 / 정순원

94년 국내 경제 전망 요약 / 동향분석팀

1994년도 환율 전망 / 한상완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94년 국내 경제 / 유병규

내년도 물가가 더욱 불안하다 / 홍순직

시중 금리 점차 하향 안정 / 손영기

여전히 부진할 내년도 수출입 / 이상용

증시, 상승세는 어디까지? / 박종곤

조선 / 심재철

건설 / 박재원

반도체 / 이장균

자동차 / 신승철

석유화학 / 전병유

공작기계 / 류재현

회복의 조짐 안보이는 일본 경제 / 홍근철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경제 / 김정균

기대에 못 미치는 미국 경기 회복 / 박송동

유럽대륙의 난기류 - 시장통합과 실업과 복지와의 노조 / 심수섭

Management Strategy

저성장기의 기업 경영 전략 / 이장호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기업 생존력 강화 방안 / 백기

Special Features

한국 산업 구조 조정기의 기업 투자 전략 / 이경태

노동법 개정과 노사 관계의 안정 / 이광택

Statistics

회원사용

## 94년 경제의 운용

鄭淳元\*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업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경제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물가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5%선을 이미 돌파하였고 실업률도 4/4분기에는 3%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의 작성에 적용되는 현행 통계 방식이 주당 1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을 감안할 때, 3%의 실업률이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3%대의 실업률은 86년에 3.8%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서 이는 고용 문제가 또다시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민간 부문이 향후 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지 못한 데에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상당 기간 부진하여 공급 애로가 발생하였으며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몇 개월간 정부 정책의 흐름이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기 보다는 금융실명제 실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

는 데에 집중되었지 않았느냐는 느낌을 받는 것도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도 경제 정책 당국의 기량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정부가 그동안 물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물가 불안 문제가 생기고 이에 따라 이것이 다른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제도 개혁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 부실하여 정부가 민간 투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현실 경제의 진단과 효과적인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경제 개혁 정책에 가리워져 경제 내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94년도 우리 경제의 운용은 이와 같은 정책 운용상의 맹점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기조하에서 어떠한 정책 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94년도에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

\* 연구실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 금융·거시경제이론전공

상황을 점검해 보자. 우선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들은 이른바 신보수주의 경제 정책 기조 하에서 금융, 재정 및 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루과이 라운드는 협상의 포괄적인 타협보다는 그 대상과 타결의 범위가 축소된 mini-round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는 내년 초부터 물가 상승의 압력을 이겨 내야할 것이다.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 조정의 여파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세수 부진으로 말미암아 재정수지의 적자가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금융 시장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며 금리 자유화로 인하여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실업난 해소 중에서 과감하게 어느 한쪽에 경사된 정책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서 어떤 정책 기조를 취하던지 일관성있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민간 부문에서 정책 방향에 걸맞게 투자 및 영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세부적인 산업 정책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행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민간 기업이 자율적인 경영 환경을 갖도록 해주는 일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경제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선진화에 꼭 필요한 방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 분담을 요구받고 있어서 이를 내심으로 수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예상해 보면 94년도 경제 운용의 기조는 통화량 및 정부 지출의 과감한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과, 과감한 경제 개혁을 통하여 민간 부문(외국을 포함하는)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 규제의 완화와 SOC 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의 조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에 임금 상승 압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와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94년도 경제 운용은 결국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인 구조 개선의 모색이라는 다소 상반된 두 가지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위한 입체적인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구미를 당기게 하는 정책 수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주체 모두가 단기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의식 개혁이 따르지 않고는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정책 선택 비용을 줄이고 경제를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저축 의식을, 근로자는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키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기업은 과감한 기술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기 위해서는 아마도 '경제 정책 9단'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는 정책 수단의 활용도가 크지 않으면서도 경제 주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